

21C 감성의 패션과 섬유예술의 비전

이 진 봉

이포엠피연구소 소장

오늘날 전 세계는 과학의 진보, 컴퓨터 통신의 눈부신 발달에 따른 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빠른 가속도의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른 섬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패션산업은 21C에 접어들면서 실용성에 예술성향이 복합된 효과를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는 아시아권에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는 즈음, 중국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득(得)과 실(失)에 대해 특히 섬유소재분야와 패션분야에 대한 교육과 산업의 냉철한 판단을 비교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일본의 교육과 산업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필자는 1990년 초 독일, 단지 염색을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 일본 동경의 한 염직 전문학교에 들어 가면서 3년간의 전공을 마치게 되기까지 전문 교육 커리큘럼은 예를 들어 보자면 미국의 파슨스와 로드 아일랜드 스토크의 복합적 요소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을 만큼 전자 저울의 눈금의 0.01g의 오차도 용서가 안되는 철저한 교육이었다.

예술성을 기초로 염색은 물론 직조, 프린트, 가공 등 섬유에 관련된 Technique에 관하여 다양하게 다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과 각 분야의 회사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한편, Textile 관계의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곧 바로 산업적 개발로 이어져, 생산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지금껏 발전되어 왔다. 한 예로 그 당시 매우 가벼운 금속으로 알려진 티타늄을 섬유가공에 접목시켜 새로운 소재 개발을 한 학생도 Contest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수상된 작품은 곧 산업 현장에 바로 연결되어 신소재 생산에 들어가는



<그림 1> 아라이 준이치(新井淳一)씨의 작품들

자연스런 흐름은 이미 그 때 당시에 30여년이 넘었으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신소재에 예술성을 가미, 패션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일본 동경의 오오츠키(大塚) Textile Design วิชาชีพ 전문학교의 간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이 준이치(新井淳一)라는 분의 시도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술적 감성의 소재 개발가로 미국의 잭 라센씨와 함께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 알려진 전문가이자 예술가로서 일본 Textile 부문에서 아라이 선생의 역할과 스토리는 매우 중요한 일본 섬유 패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으며 그야말로 전문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은 과학적인 기술 개발 및 섬유산업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의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 및 연구와 노력으로 결국, 소재 개발 및 패션 분야에 있어서 '80년대 말부터 유럽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이 대거 유럽을 석권하기 시작할 무렵에 마야케 잇세의 리플(주름) 소재를 비롯 쾨디 가르송의 울 수축에 의한 소재, 호소가와신(남성복) 디자이너의 파슈 브랜드의 열전사프린트는 물론, 대표적인 예로 히시누마 요시키라는 젊은 디자이너는 염착 가공을 비롯 준이치 아라이 선생과 함께 여러 가지 테크닉의 소재를 패션에 도입하여 영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프랑스 빠리 컬렉션에 참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동경 록본가에는 '布' 누노라는 유명한 Art fabric 전문 Shop이 있어 단골 고객은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다.

결국, 과학적 사고로부터 시작되는 직조 및 가공의 섬유 공학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결합된 신소재 개발에 주력한 결과의 고부가가치의 패션산업은 이제 세계시장의 전반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여파로 필수 불가결의 신소재 개발 및 감성패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림 2〉
주름+전사프린트

〈그림 3〉
염착가공

〈그림 4〉
메탈 용해 가공

〈그림 5〉
열 전사 프린트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선 교육 분야에서 보자면 산업과의 연계적 교육은 거리가 먼 실용성이 배제된 이론적인 예술적, 디자인 교육이 불과 몇년전 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IMF 이후 조금씩 대학 교육의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 오고는 있으나 아직도 '70, 80년대 실시되기 시작한 그때의 교육 프로그램이 약간의 변화만으로 대학, 대학원 및 박사 교육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쉬울 뿐이다. 물론 산업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에 임하여 시대에 걸맞는 소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년전에는 질이 우수하고

상품 경제성이 있는 스펀실의 개발로 수출의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면도 있지만 교육과 산업은 평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이다.

1997년 12월에 필자가 이포염직연구소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세미나를 통한 각 대학의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보자면 너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의 흐름은 그리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 학교별 교육 현장에 필요한 기구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투자만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0년 넘게 실제 염색을 해 오면서 관련 분야에의 연구와 실제 작업에만 몰두해온 나로서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비사상에서 비롯된 기술 천민의 사상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학벌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인 이유로 사회 전반에 걸친 대혁신, 대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이대로 약간의 변화만을 허용한 채 그대로 진행되리라는 안타까운 결론이 설 뿐이다.

그래도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아주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의 불황의 시기가 희망의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앞에 나열한 일본의 실정은 찬사가 아니라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는 한국사람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감성의 소재개발가로 유럽 전역에 수출하고 있는 파이에플 소재 개발의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일 씨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시 소재 개발의 민영경씨를 자랑스럽게 꼽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두 분 모두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며 또한 국내에선 사실상 개발 시스템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심려해야 할 것이다.